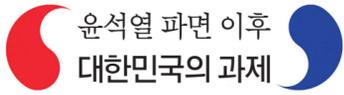


지역도 소상공인도 벼랑 끝...민생 살리기 최우선 과제



윤석열 파면 이후 대한민국의 과제

<하> 경제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이 부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이어지던 경기 침체는 불법 비상계엄 조치 이후 한층 심화됐으며,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 달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월에는 98.5로 소폭 반등했지만, 세 달 연속 하락세 이후의 미미한 상승이라 경기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내수 출하지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된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경기지수 하락세는 특히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작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전후로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경기지수는 등락을 반복했으나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왔고, 12월 이후에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과 생산 등 주요 경영 활동의 결과와 전망을 지수화한 '기업경기조사(BSI)'는 작년 11월 91.8에서 12월 87.3으로 급락했다. 이후 올해 1월 85.9, 2월 85.3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도 작년 11월 91.3에서 12월 90.2, 1월 89.2, 2월 88.3, 3월 87.3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덮친 경기 악화는 더 심각하다. 광주지역 산업단지들은 경기 침체에 더해 소비 부진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발주량마저 끊기고 있다.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도 감소했고, 전체 생산액도 급격히 줄고 있다.

하남·진곡·침단·평동 등 광주 7개 산업단지의 누계 생산액은 2022년 3분기 기준 29조 7517억원에서 2023년 28조 3250억원, 2024년 3분기에는 28

조 2153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역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에 짓눌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한 지역 경제 단체들은 차기 정부를 꾸리게 될 대선 출마 후보들을 향해 지원 대책 마련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이번 조기대선에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회원사 및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차기 정부에 제안할 '10대 대선 공약'까지 짜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사업 확대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한 중소기업 인직원 간접세 감면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등이다.

대선 주자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 공약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게 지역 경제인들의 호소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략적인 대선 공약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차기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확대, 제조업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인력난 해소 등의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마지막 관람?” 청와대 찾는 시민들 시민들이 9일 서울 중로구 청와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1인당 월 배달앱 지출 10만원 육박...평균 3.7회 이용

국내에서 배달앱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결제 금액이 10만원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앤리테일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뽕요 등 배달앱에서 결제한 사람은 2351만명이다.

1인당 평균 3.7회에 걸쳐 모두 9만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추정됐다. 배달앱 사용자 수는 40대가, 결제자 수와 결제 금액은 30대가 각각 가장 많다. 30대는 1인당 월평균 결제액이 10만원을 넘었다.

1인당 결제 횟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4.4회)였다. 스마트폰 보유자 중 53%인 2701만 명이 배달앱을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민 이용자가 2238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쿠팡이츠는 1100만명으로 배민을 무섭게 추격했다. 쿠팡이츠 이용자는 지난해 3월 645만명에서 1년 만에 500만명 가까이 늘면서 1천만명을 훌쩍 넘겼다. 요기요는 이용자가 504만명으로 줄었고 뽕요는 153만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배달앱 결제 추정 금액은 2조2800억원으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인 2022년 3월(2조3151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몸과 마음 치유’ 광주·전남 힐링 스팟 9곳은?

문체부 ‘웰니스관광지 88선’ 선정 테라피 스파 소베·정남진 편백숲 등

광주·전남지역 관광지 9곳이 방문객의 몸과 마음 을 치유하는 ‘우수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웰니스 관광지 88선’을 공개했다.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이 여정에 따라 대체로 형태와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한방(9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77곳에 올해 11곳이 추가됐다. 광주에서는 뷰티·스파를 테마로 한 테라피 스파 소베가 유일하게 선정·운영 중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힐링·명상 주제로 해남 대흥사와 한방주제 분야에 전남 마음건강 치유센터가 추가돼 총 8곳의 웰니스 관광지가 선정됐다.

기존 6곳은 자연치유 주제로 완도 해양치유센터,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태평염전 해양힐링 스파, 국립장성 숲체원과 힐링·명상 주제로 전남권 환경정질환에방관리센터 등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대해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뿐만 아니라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관광공사와 함께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토란으로 만든 떡볶이 밀키트 맛보세요”

전남농기원, 곡성 토란 활용 부침가루 등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이 9일 “토란으로 만든 떡볶이 밀키트와 부침가루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토란은 지리적 표시제 108호인 곡성의 대표 작물로, 곡성은 전국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토란은 칼륨과 칼슘 등 무기질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또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열알 조절, 변비 개선, 항당뇨, 면역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토란은 저장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 주로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데 특유의 아린 맛 때문에 기피하는 이들이 많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토란의 아린맛을 줄인 가공제품 개발에 나서, 아린맛을 원물 대비 30%의 줄은 건조분말을 개발했다.

이 분말을 활용해 토란 떡볶이 밀키트와 스틱형 토란 부침가루를 내놨다. 떡볶이 밀키트에는 직접 만든 조물떡과 떡볶이가 동봉됐



다. 스틱형 부침가루는 기존 토란 부침가루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가공기술을 지역 토란 가공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이번 제품 개발로 토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주식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3월 31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 2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 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5. 04. 0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30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29,900주에 대하여 29,900주 비율에 따라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 30,000주를 1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5년 4월 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1,300,000,000원 중 32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 98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130,000주 중 32,000주를 회망하는 주주로부터 매수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130,000주를 98,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케이제이홀딩스(이하 "케이"라 한다)는 2025년 4월 1일, 주식회사 에이치오퍼레이팅(이하 "에이오"라 한다)을 같은 날 1일, 주식회사 케이브이로퍼레이팅(이하 "케이브이"라 한다)을 같은 날 1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케이"와 "에이오" 및 "케이브이"를 합병하여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에이오"와 "케이브이"를 각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 관세청에서 이의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